

# 독립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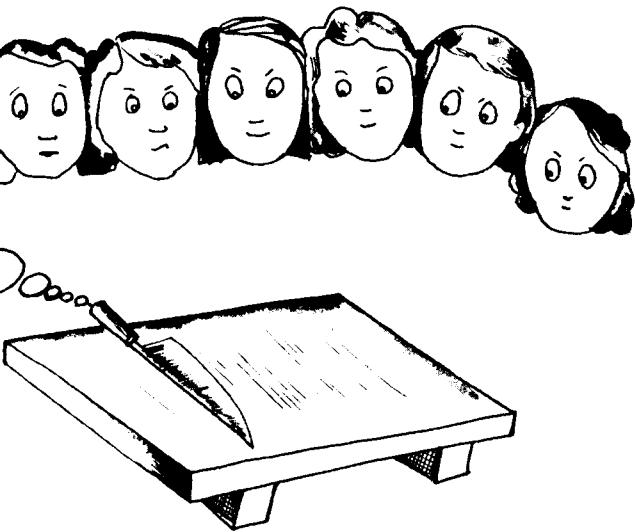
오정희

- 1947. 11. 9 서울출생
- 1970.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졸업
- 1968. 중앙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부 당선
- 1979. 제 3회 이상문학상 수상
- 1982. 제 15회 동인문학상 수상
- 창작집 : 《불의 고》 《유년의 돌》 《동경》 《바람의 날》 등이 있음.

마흔이라는 나이를 코앞에 둔,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게 마련인 인생의 중간 결산 내지 점검 시기에 다다른 우리 사이에서 그것은 <독립 선언>이라고 일컬어지곤 했다. 자유로움과 거칠 것 없는 삶에 대한 막연한 선망과 자기 자신과 생활이 조금은 달라지고 싶다는 욕구, 새로운 생활에의 충동적인 열정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그러한 것을 위한 노력에도, 방법에도 모색에도 게으른 자신에 대한 비아냥거림, 냉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여자라는 생태적 요건, 인습의 요구, 아내노릇, 주부노릇, 발전도, 눈에 뜨이는 변화도 없는 나날의 생활에 항상 뭔가 억울해 하며 자기 성장은 커녕 성장조차 정지된 듯한 위기감을 느낄 때, 나는 무엇인가, 나의 생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따위 존재론적 회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문득 아, 독립 선언 해버릴까부다, 라고 감히 저지르기도 못할 탄식을 내뱉곤 하는 것이다. 확실히 중년이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래서 일시에 심신이 새로워지는 충격 요법이 요구되는 때인 모양이다.

8월 말, 늦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려대는 한낮임에도 <한빛회>모임은 여느때 없이 시골벽적했다. 고작 육, 칠명 참석하기 예사였던 모임에 회원 열두명이 거의 다 나와 경양식집 <가람>의 한 귀퉁이를 점령하고 앉았으니 그럴 법도 했다. 대체로 바쁘다거나 시부모 모시고 사는 핑계를 대며 날이 갈수록 발길이 뜸해지던 윤자, 혜경, 숙희 들까지 나오게 한 것은 필히 연락책인 성숙이의 공로로 돌려야 할 것이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1시 경양식집 <가람>으로 불박혀진 모임이었지만 출석률이 시원치 않은 터라 매번 성숙이가 전화 연락을 맡고 있었다. 전화 끝에 지나가는 말처럼 민주의 <독립 선언>전을 흘렸더니 내내 이불 빨래를 해야 된다고



나 손님이 올 예정이라 못나갈 듯하다고 시큰둥하게 대꾸하던 친구들이 단박 놀랄만한 반응을 보이더라고 성숙은 혀를 낼름 내밀며 말했다. 애, 나이 들수록 그 칩칙한 호기심은 더 기승을 떠는 거 있지. 하긴 남의 집 불구경이 그렇게 재미있는 거라며? 나는 안전지대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항상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냐?

악국을 하는 선지는 <급한 용무로 오후 세시까지 문을 닫는다>는 쪽지를 붙이고 나왔다고 했고 잡지사 기자인 영진이는 필자 만난다는 구실을 대고 나왔다고 킬킬거렸다.

『민주, 개가 워낙 사연이 많은 애라 이혼에 얽힌 얘기를 캐다보면 쓸만한 기사거리가 나올지 모르잖아?』

<민주가 드디어 독립 선언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적하면 입맛이라고, 말 그대로 독립 선언, 즉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와 독자 노선을 걸겠다는 이혼 선언 아니겠어?> 그 말 한마디의 위력으로 회원 전원이 참석해 상황을 이루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민주는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열두 사도의 회동은 실패구나』

날라져 온 오렌지 쥬스를 한모금 마시며 은자가 영탄조로 내뿜었다. 열두 사도. 고등학교 동기 동창

중에서 비교적 친분이 두터웠던 우리가 월 1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된 것은 막내 아이까지 겨우 유치원에 넣은 다음인 서너 해 전부터였다. 결혼과 동시에 약속이나 한듯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시집 살이하라, 아이 낳으라, 생활기반 잡으라 근검절약 알뜰주부로 십년 남짓 보낸 뒤 외출 때마다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내 집 열쇠 마련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외출복도 두어 벌쯤 장만한 형편이 되어 비로소 앞뒤좌우를 둘러보며 잊었던 옛 친구들을 찾아볼 여유가 생겼던 거였다. 적당히 살림때 불고 중년살이 오르기 시작한 모습으로, 그러나 마음만은 여전히 말보다 웃음이 많았던 소녀시절인 채로 만난 우리들은, 애초 모임을 주동한, 목사 부인이 된 인성이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를 귀에 젖도록 들어온 미션계 여고 출신들답게 <한빛회>라는 명칭에 이의를 달 까닭이 없었다. 인생살이의 어려움이나 쓸쓸함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는 나이에 이르러 친구 역시 귀중한 재산이요, 없지 못할 위안과 힘이라고, 기왕에 맺은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자는 것이 모임의 뜻이었다. 그러나 하릴없이 잡담이나 하고 헤어지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고 토론하는 교양 독서회로 하되 인성의 주도로 성경공부를 하고 식사대와 찻값을 아껴 기금을 모아 장래 모교에 장학회쯤 하나 만들어도 좋고, 우선은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서 뭔가 사회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최초의 의도는 거창하고 가특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처음의 청사진이었을 뿐이었다. 뜻있고 보람 있는, 또한 사회적으로도 명분이 서는 일에 자신의 힘과 시간을 나누고 싶었으나 가정에서 항상 대기조로 존재하는 주부로서 돈벌어오는 것도 아닌 일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낸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모두 대학 졸업의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야에 종사하기에는 전문성이 모자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가정 밖의 일에 규칙적, 지속적으로 힘과 정신을 쏟는 데 길들여져 있지 않았다. 십년 세월이 우리의 의식을 내 가정과 그것에 연계된 자잘한 친적관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의 좁은 울타리 안에 철저히 가두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일년이 채 안되어 인성이가 선교이민을 떠나는 바람에 성경공부도 중단되고, 때문에 우리는 발의만 거창한 채 용두사미 꼴이 되어버린〈한빛회〉 모임에 대한 자조를 열세명의 회원 중 일찍 손뎌 인성이를 가룟 유다로, 나머지 열두명을 열두 사도로 치칭하는 것으로 나타내곤 했다. 모임 명칭을 굳이 무언가 목적이 대단한 듯한〈한빛회〉로 할 게 뭐냐. 차라리〈토요회〉 따위 평범한 이름으로 서로 얼굴이나 보고 얘기나 하자는 가벼운 마음이 낫지 않느냐는 누군가의 말처럼 모임은 명실공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월 1회의 외출이 되어버렸다.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안타까움이 없다면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거라는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카프카 소설의 한 주인공인〈잠자〉는 어느날 아침 벌레로 변신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또는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른 예수의 행적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토론보다는 남편과 아이들, 시댁 식구 얘기, 아파트 매매 현황에서부터 백화점 재고정리, 세일 등에 이르는 각종 생활 정보, 정계 재계 연예계 인사들의 뒷이야기, 친구들 가정사의 숨은 문제들이 훨씬 흥미있고 활기 띤 화제가 되곤 했다. 유행하는 옷을 찾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을 해도 거칠고 투박해진 손은 감출 수 없듯 맘껏 허리띠 풀고 앉아 있는대로 삼키고 쏟아내곤 하여〈가람〉을 나설 즈음 중내 밝은 햇빛 아래 화장 지워진 얼굴의 주름살과 기미, 들성들성 돌아나는 흰머리카락들을 서로 발견하고는 얼마름 처연하고 쓸쓸한 기분이 되어 헤어지는 것이다.

『아직 마음 정리도 안되었을 텐데 친구들 앞에 나타나고 싶겠어? 여자는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이혼일 경우에도 일단 법적으로 성립되고 나면 패배감을 느낀다던데』

『하여튼 용기가 좋아. 이 나이에 이혼을 생각하다니. 여자 나이 마흔이면 지나가던 개도 안 돌아본다는데』

『어머 애는 말하는 것 좀 봐. 남편과 헤어지는 게 또다른 예속 상태를 위한 것 같이 생각하니? 결혼은 한번만으로 족해. 민주는 이제야 자유와 해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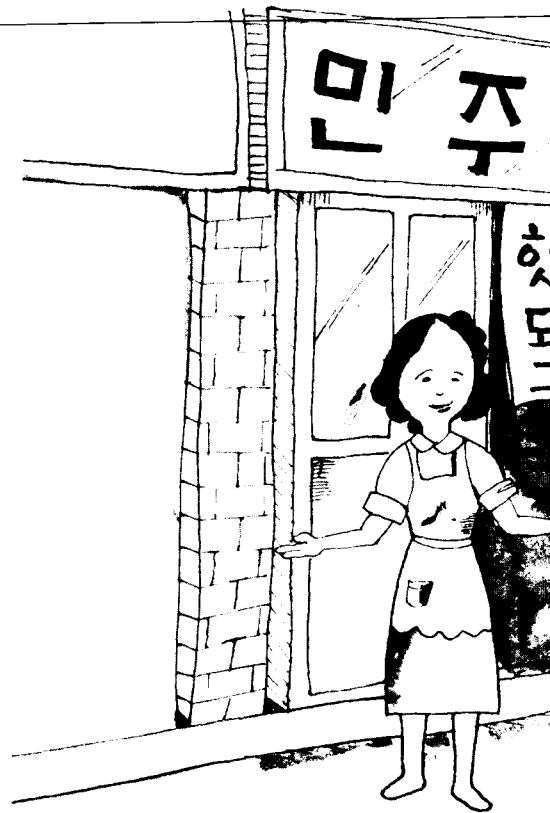
쟁취한 거야. 한번뿐인 인생인데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한집에서 살 게 뭐 있어?』

『술직이 말해 원수처럼 산 건 아니지 뭐. 제 몸은 고달파도 무능한 남편을 삼대독자 아들 위하듯 하더라. 난 사실 개가 이혼했다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그건 모르는 소리야. 민주, 개가 워낙 야무져서 속삭는 것 내색 안해서 그렇지 오죽 꿏았겠어? 생각해 봐. 십년을 하루같이 뜯구름잡고 앞전달로 마누라한테 얹혀 사는 판인데. 난 오히려 여지껏 민주가 참고 산 게 이상해』

『세상살이라는 게 참... 민주 남편 말야. 인물 좋고 매너 좋고 기분파였는데... 이런 끝을 보려고 약을 몇번씩 먹었나...』

우리는 모두 민주연애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중소도시 운수회사 사장을 아버지로 둔 민주 남편은 유학길 떠나려는 민주를 잡기 위해 두번이나



약을 먹고 자살극을 벌였다. 결국 민주는 티파니 커피의 일캐럿 다이어반지를 끼고 등이 여든 개나 된다는 데 저택으로 시집을 갔다. 물론 사랑과 부에 대한 우리들의 선망과 질시도 한몸에 받으며.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운수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고 집이 차압 당하는 등 불운이 잇달았다. 거기에는 사업을 벌인다고 허황하게 돈을 뽑아 날린 민주 남편도 단단히 한몫 했다고 했다. 결국 민주는 친척 언니와 동업으로 작은 양품점을 내어 가게에 딸린 단칸방에서 아이들 셋을 기르며 생활을 해오던 터였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았더니? 남편은 돈이 없어도 시댁은 아직 시골에 부동산이 꽤 있다던데. 아이들은 누가 맡는데? 민주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래?』

그중 민주와 가깝고 독립 선언 소식도 직접 들었다는 성숙에게로 질문이 쏟아졌다.

『글쎄 구체적인 건 몰라. 만나지도 못했고. 달포 전인가 양품점으로 전화를 했었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영 침울한 기색이야.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대뜸, 치사하고 아니꼬워서 못 견디겠어. 이 참에 독립 선언해버렸어, 라는 거야. 내가 그만 뺄해졌지.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되물으니 별반 대꾸도 없이 나가볼 데가 있으니 전화 끊자고 하더라. 그리고 엇그제 양품점에 전화했더니 엉뚱한 데가 나와. 번호가 바뀐 거야』

『결국 이혼녀가 나타나야 진상을 알겠구나』

『복잡할 거 없어. 원리는 간단해. 살만하면 살고 못살겠으면 헤어지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 생각을 해봐.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비행 청소년의 70%가 결혼 가정 아이들이란 통계도 나와 있어』

『우리나라 가족법이 얼마나 여자한테 불리한지 알아? 위자료라야 기껏해야 재산의 20% 밖에 못 받아. 친권은 물론 아버지한테 있고, 여자 혼자만 빈몸으로 떨어져 나가라는 거야. 여자는 그저 집안을 위한 소모품일 뿐이라는 의식이 지배하고...』

화제는 민주의 이혼건, 나아가 여성의 인권 주위에서 맴돌며 갈수록 싱싱하고 풍성해졌다. 민주가 나타난 것은 스테이크 접시를 말끔히 비우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였다. 누구의 눈에도 막 부엌에서 고무장갑 벗어놓고 나온 듯 보일 후출근한 차림의 민주는 우리가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온 말과 표정을 채 짓기도 전에 활짝 웃으며 말했다.

『혹시나 하고 왔는데 역시나구나. 너들 엉덩이 무거운 건 알아줘야 해. 뻥히 뵈는데서 못오니 얼마나 애가 타는지. 점심때라 손님이 좀 밀려야지. 참나 요 앞에 분식집 냈어. 말이 좋아 동업이지 영 신경쓰이고 치사한 일 많아 못해 먹겠어. 그래서 양품점 그만두고 독립 선언 해버렸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장사를 해보자고 애들 아빠는 주방장 노릇하고 나는 카운터야. 허지만 온갖 잡일이 다 내 몫이지 뭐. 다음부터는 우리 식당에서 모이자. 서비스 잘 할게 매상 좀 올려줘』

